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북도 완주군
- 화산지역아동센터



2017. 8

남*영

첫 날, 센터에 도착해서 마구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래서 첫 날 저녁에 다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감당할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게 마음을 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점점 긴장을 풀고 아이들과 진심으로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6학년 멘토링 담당자였다.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을 프로그램 중에 따로 빼내어서 공부를 가르쳐야 했다. 공부를 가르친 첫 날에는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걱정이 앞섰다. 공부에 대한 의지와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억지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내게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하나 둘씩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놀랄 만큼의 열의를 보여줬다. 2명으로는 질문을 받아주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할 때 힘들면서도 더 열심히 설명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보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다. 특히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배운 것을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진심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임*민

지난 4박 5일은 저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센터 관계자들의 간섭과 불통에 속상해하던 것도 잠시, 서울로 떠날 마지막 밤이 되니 같이 활동에 참여한 조원들과 아이들에게 정이 들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저에게 인생에 있어 좋은 양분이 되어 올해 여름 방학을 매우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얻은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번 화산지역아동센터로의 봉사활동은 센터 관계자들의 불통과 간섭으로 저희 팀원들이 초반에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대로 준비한 활동은 아동센터 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무산이 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너무 잦았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에서는 준비된 프로그램과 약속된 시간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망의 연속은 저희 팀원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저희 팀원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약조건 속에서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활동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무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지 경험하면서 활동 이후에 제 자신의 언행이나 생활방식을 여러 번 검토한 후에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움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길 줄 알았던 4박 5일은 꿈처럼 지나가버렸지만 활동을 통해 배운 교훈들과 추억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공식적인 봉사활동이었다.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이나 다른 봉사활동의 경험은 있었지만, 아이들과 5일 연속 함께 보내며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 팀원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봉사를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실제로 센터에 도착한 첫날도 별 다른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다. 아이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목소리도 크고 체력도 좋아서 첫날밤을 걱정 반 두려움으로 보냈고 그 이후의 활동들 또한 정신없이 이어져나갔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신적인 힘듦은 많이 사라져갔고 어느새 팀원들에게 서로 의지하며 봉사를 진행했던 것 같다. 준비해간 상품이나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지 않거나 대놓고 싫은 티를 낼 때면 맥이 빠지기도 했지만 소소한 일에도 웃어주고 열심히 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또 보람이 느껴졌다. 와중에 센터 내부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레 프로그램을 공지받기도 하여 스케줄을 급히 조정하고 무언가를 급하게 준비해야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팀원들과 더욱 돈독해지며 배운 것도 많았다. 몸이 힘든 것도 잊고 신나게 봉사를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몸이 힘든 만큼 아이들이 즐거워해줬고 그만큼 배워가는 것이 많은 봉사활동이었다.

임*진

저는 재학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육원으로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두시간정도 영어 수업을 했고 가끔씩 행사가 있으면 하루 종일 행사를 보조하거나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숙박형 봉사활동에는 전혀 경험이 없고 아이들과 며칠 연속으로 교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기대로 부푼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화산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귀여운 초등학생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는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때때로 아이들이 싸우거나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떠들 때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화봉사단 팀원들과의 충분한 회의와 아이들의 협조를 얻어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큰 의미로 다가 왔습니다. 이화봉사단 여름캠프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길 진심으로 바라며, 가끔씩 이화봉사단을 기억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영

처음에 봉사단 팀원들끼리 만나서 아이들과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 의논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4박 5일의 끝이 되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처음에 화산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이유는 딱히 없었는데, 와보니까 이곳으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따로 봉사단 팀을 위해 숙소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아이들도 많지만, 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을 시키면 잘 따라주어서 너무 기특했던 것 같다. 다만 사소한 이유로 싸우는 것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졌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매사에 감사하고,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작지만 큰 깨달음을 얻고 가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고, 숙박까지 하면서 해보는 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첫 경험을 좋은 곳에서, 좋은 아이들과, 좋은 봉사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다. 마지막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신경써주신 센터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화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나의 첫 봉사 기억은 아마 오래오래 간직될 것 같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봉사활동은 처음인데다가 새롭게 알게 된 팀원들과 4박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에 오기 전부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참여 후에는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통제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서 지치기도하고 피로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아이들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활동을 집중하여 참여해주고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배웠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아이들을 대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아이들과 대화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며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된 것 같다. 또 이번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4박 5일 동안 센터의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요청,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 난항을 몇 번 겪었었다. 그리고 센터에 미리 요청 드렸던 사항이 센터 관계자 분들의 소통문제로 지켜지지 않아 당황했던 적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 매우 힘들긴 하였으나 이러한 위기를 통해 응급사항에 대처하는 순발력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교육 봉사활동은 새로 학교의 후배, 선배, 동기들을 사귀고 친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함께 앞에 언급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의논하여 해결해나가고 아이들을 지도하며 어색했던 처음과 다르게 많이 친해진 것 같다. 따라서 이번 봉사활동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기쁘다. 이 경험이 내가 앞으로 겪은 많은 상황과 일들을 해결해 줄 수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